16강 - 1980년대 이후 현대 영화의 흐름(2)

이번 시간에는 1980년대 이후 현대 영화 중에서 컬트영화나 누벨 이마주와 더불어서 민족성, 계층·계급성, 사회의식을 아주 강하게 반영하는 영화들의 흐름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큰 대륙. 다양한 인종과 계층·계급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의 사회의식이 영화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리버 스톤의 사회의식영화

우선,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에 그런 측면을 가장 잘 반영한 대표적인 감독 중의 한 명이 올리버 스톤Oliver Stone 감독입니다.

올리버 스톤은 월남전 3부작을 통해서 그의 영화세계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올리버 스톤의 월남전에 관한 영화는 그가 경험한 개인사로서의 의미하고, 미국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역사적 시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는 세 편의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서 월남전과 미국의 60년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플래툰Platoon>(1986), <7월 4일생Born on the Fourth of July>(1989), <하늘과 땅Heaven&Earth>(1993) 이 세 편을 "월남 3부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월남전 영화는 올리버 스톤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작품 역시 숱하게 만들어지는 월남전 소재 영화의 계보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올리버 스톤 영화가 구별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월남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했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것은 그 전에 만들어진 월남전 영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명하게 알 수가 있죠.

월남전에서 부상당해 돌아온 상이군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사회에 부적응하는 문제를 다룬 <귀향Coming Home>(1978)이라는 영화가 있죠. 할 애쉬비Hal Ashby 감독의 <귀향>이 있고요.

월남전을 초현실주의적으로 묘사해서 개인의 자의식 내에서만 영화를 전개시킨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프란시스 포드 코폴라,1979)이 있고요.

또 월남이 패망했다는 의식과 월남전에서 살아남은 미국인들이 미국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

을 맺는 <디어 헌터The Deer Hunter>(마이클 치미노,1978)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그동안 월남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영화들은 하나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증오라든지. 즉 전쟁이 순수한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미국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1914)에서 부터 스필버그의 <E.T.>(1982)에 이르기까지 미국영화가 줄곧 견지해온 "미국영화의 정신", 그것이 바로 이들의 월남전 영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숭고함"입니다.

하지만 미국영화가 동시에 중요한 주제의식인 '인간의 평등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고의로 간과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인간의 평등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종 차별'적인 것입니다. 인종 차별에 대한 배격이 바로 인간 평등주의의 고양일 것인데요. 미국만큼 인종 차별주의를 없애자고 공공연히 외치면서도 사실 실생활에서 그것이 자행되고 있고, 그 인종 차별주의를 영화 속에서 그렇게 심하게 보여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월남전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공산주의 vs 자본주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미국 연합군 vs 베트남 투사들' 간의 인종적인 싸움·투쟁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인종주의적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리버 스톤 이전의 월남전 영화들이 "인종 평등적인 시각"에 있어서 다뤄지지 못했고요.

올리버 스톤의 <플래툰> 역시 월남전을 반성적인 입장에서 다루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메세지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플래툰>은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시각을 던져주긴 합니다. <람보>류의 영화가 아직도 월남전 참전 용사를 단지 영웅시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발전된 시각이긴 하죠.

하지만 올리버 스톤은 <7월 4일생> 이후에 그 보다는 한 층 더 나아간 인종 차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부합니다. 따라서 이후의 영화들은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인종 차별의 문제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월남전이 미국의 정체성-아이덴티티를 질문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그런 생각의 발단은 지난 수십년간 월남전이 끝나고 현재까지 올리버 스톤이 월남전을 해석하면서 도출된 결론입니다. 올리버 스톤에 의하면 "월남전에서 누가 이겼는가?" 하는 문제 보다 "월남전이 미국에게 무엇이었던가?"를 묻는 것이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그의 영화는 실화를 토대로 합니다. 많은 부분이 실제 미국의 현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패배한 전쟁이었던 월남전이 '백인우월주의' 또 '부자들의 체면전쟁' 이었다고 보는 시각과 많은 젊은이들의 무모한 희생으로 끝났을 때 미국의 소수 양심들이 제기했던 인종 평등주의적 시각이 월남전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나서도 미국을 들

끓게 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화는 미국영화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춰야 했던 부분과, 또 미국영화이므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많은 토론을 유발하는 정치적 문제작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올리버 스톤이 다루고 있는 <JFK>(1991), <닉슨Nixon>(1995), <도어즈The Doors>(1991)…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월남전의 평가와 더불어서 미국의 1960년대 격동의 시절을 되짚어 보는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영화들에 나타난 올리버 스톤 감독의 시각은 60년대의 포문을 열었던 케네디의 뉴프론티어 정신과 그것에 동조한 히피 세대, 그리고 그러한 자유로운 변혁의 흐름을 일시에 공포 분위기-강압적 보수 정치로 억눌렀던 미국의 보수파들의 반격 운동과 관련된 일련의 정치적 혹은 대중적 미스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스톤에 의하면 미국의 60년대는 미국이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변화할 수 있었던 반성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영화 속에는 1960년대에 대한 향수와 예리한 정치적 비판 의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올리버 스톤의 영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선 그의 이야기하는 방식은 한 인간의 눈으로 역사를 규명해 나가는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플래툰> 보면, 월남의 밀림 오지 전선에 던져진 세 사람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막 전선에 투입 된 신병 크리스와 살인 기계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재의 목적만을 수행하려는 고참 상사 반즈, 그리고 역전의 용사이면서 휴머니티를 지니고 있는 상사 엘리어스,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영화는 신병 크리스의 전쟁 투입과 더불어 전개되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는 대학을 중퇴한 도피적인 자원 입대자입니다. 이를 테면 전쟁의 실상을 알고 체험하려는 일종의 이상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 크리스의 눈에 비친 전장은 한 마디로 지옥이었습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와 삶의 질서가 완전히 박탈된 약육강식의 현장임을 알고 그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크리스는 백전노장의 두 상사를 알게 되면서 전장 속의 휴머니티와 히스테리를 함께 체험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도 전쟁의 횟수를 거듭하면서 전쟁의 광기에 자신도 모르게 함몰되어 갑니다. 지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서로를 쏴 죽인 살육의 현장을 비겁하게 뒤로 하면서 그는 귀향을 하게 되죠.

크리스의 일기나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리스는 사적으로 월남전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의 눈에 비친 월남은 희랍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고결한 싸움터가 아니고, 비열하고 부도덕하며 환멸스러운 인간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그런 현장에서의 크리스의 반성적인 시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7월 4일생>의 론 코빅을 보죠. 이 영화는 전쟁을 소시민적인 시각에서 거창하지 않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어린 애의 회상, 조용히 나래이션과 자막이 깔리면서 주인공 소년이 친구들과 전쟁놀이를 하는 숲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56년 롱아일랜드의 메사피콰, 그가 전쟁놀이를 한다고 해서 그를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어릴 적 전쟁

놀이를 했고 전쟁놀이가 그를 변화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축제가 한창일 때,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참전 용사들이 행진을 하죠. 그들을 쳐다보는 소년 론 코빅의 눈은 반짝 거립니다. 그러나 용사들의 행진을 우울하고 장중한 음악 속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잡아 보이는 올리버 스톤 감독의 의도는 당시 소년 론 코빅의 심정을 반영하는 시점 쇼트가 아니라, 앞으로 그에게 닥치게 될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부조리한 몽타주 기법이죠.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또한 론 코빅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상징을 갖고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론 코빅은 미국이 태어난 날, 태어난 미국 그 자신인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생일 선물로 론 코빅에게 모자를 씌워주면서 "넌 미국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론은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구장에서 홈런을 쳤을 때, 그의 부모와 여자 소꿉친구는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론은 자신이 홈런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마음에도 벌써 "영웅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집에서 가족과 오손도손 TV를 볼 때, TV에서는 케네디의 연설이 나옵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던 어머니는 론에게 말합니다. "너도 커서 저 사람처럼 대중 앞에서 훌륭한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이 소년이 커서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범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평범한 소시민적 일상의 단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이 소년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웅 심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여자 친구도 멀리한 채 군대에 지원하고, 이역만리 월남전에 투입되고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으로 변해갑니다. 1967년 10월 베트남, 그는 자신의 부대가 베트공 대신에 무고한 여자와 어린이를 죽이는 것을 목격하고 전쟁에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그는 실수로 자신의 동료를 쏴 죽이게 됩니다. 회의가 점점 깊어갈 무렵 1968년 1월, 그는 수색 정찰병 총탄에 맞고 쓰러져 후방에 후송이 됩니다. 그는 미국의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게 되죠.

그는 척추에 상이를 입고 하반신 불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가 갖고 있었던 미국의 영웅적 이미지가 불구가 되고, 한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는 반영웅적인 미국의 이미지로 바뀌게 되면서 조국에 대한 불신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속아왔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는 병원에서 주변의 현실이 자기가 생각해왔던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생각해 왔던 미국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죠. 전장에 지원 입대했다가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그를 위대하다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자, 그는 발악에 가깝게 애국주의를 떠들어 댔죠. 그러자 한 흑인이 말합니다. "그 전쟁에서 왜 우리는 싸워야 했는가? 그것은 백인들을 위한 전쟁이고, 부자들을 위한 전쟁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론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론 코빅은 자신의 소꿉친구인 여자 친구가 반전 시위를 하는 적극적인 여성, 정치적 현실을 자각하는 여성으로 변모한 것에 더욱 충격을 받고 자신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1960년대의 정치적인 역사를 한 개인의 시각에서 풀어나간 영화이죠.

<하늘과 땅>의 월남 여인 레 리의 시각을 보도록 하죠.
월남 여인 레 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베트남 중부의 마을 키라, 목가적인 전원 풍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평화롭고 아름다워만 보이는 이곳에 프랑스가 침공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두 오빠는 공산당에 가입해서 가족의 곁을 떠났고, 그녀는 자신을 흠모하던 한 공산당 청년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중부의 소란을 피해 사이공으로 흘러든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한 부유한 가정의 집안일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곧 쫓겨납니다. 그녀는 주인 남자의 아이를 갖고 쫓겨나서 사창가 생활까지 해가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 가보지만 이젠 더 이상 그들이 함께 살 수 없음을 느끼고 사이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스티브라는 미군을 만나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레 리는 거대한 미국, 새로운 환경에서 넘쳐나는 음식, 스티브가 믿는 예수, 그리고 전쟁의 악몽에 사로잡혀 헤어 나오지 못하는 스티브의 정신적인 고민 등, 이러한 이질적인 것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환멸을 안고 베트남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시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면서 정착하게 되는데요.

올리버 스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갈등이고, 그 갈등의 고리를 풀고 화합되어야 한다는 메세지입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던 것은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화를 이간시키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반성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JFK>의 게리슨 검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공적 정의를 규명하기 위해서 악전고투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무실과 가정, 아내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다시 피어나는 그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진실에 대한 탐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미국역사 다시쓰기" 작업, 그리고 그의 사회적 인식을 그의 영화를 통해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리의 흑인인권영화

올리버 스톤과 같이 사회의식을 잘 반영한 감독으로, 흑인 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스파이크 리Spike Lee 감독의 영화 세계 또한 중요합니다.

스파이크 리는 <똑바로 살아라Do the Right Thing>(옳은 일을 해라,1989)라는 영화로 미국 영화계에 돌풍을 몰고 왔었죠. 그리고 이후에 <모베터 블루스Mo' Better Blues>(1990)

라는 신작을 발표 했고, 이후 더 많은 문제작들을 만들었습니다만,

<옳은 일을 해라> 이 영화는 다른 미국 영화들에 비해서 적은 제작비를 가지고 제작이 되었지만, 개봉 이후 흥행에 성공하므로서 상당히 대중적인 의식을 보여줬어요. 스파이크 리 영화는 미국영화계에서 상당히 독특한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첫째, 감독이 흑인이라는 점과 캐스팅과 주요 제작진이 대부분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또 영화 내용도 흑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흑인 인권에 대한 시각을 대중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감독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모 베터 블루스>는 나이트클럽에서 트럼펫을 부는 브리크라는 인물이 유태인과 백인 사이에서 고용되어서 어떻게 착취당하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예계 종사하는 흑인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했지만,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흑인과 백인 그리고 다른 유색인종 간의 삼각의 힘의 권력 관계 속에서 흑인은 어떤 위치를 갖고 있고, 사회 속에서의 불리한 위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흑인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노예 근성과 열등 의식을 어떻게 하면 벗어 날 수 있는가?"를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흑인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오히려 흑인의 모순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꾸로죠, 그러니까 흑인의 인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흑인의 자존심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드러낼 것이 아니라, 먼저 흑인의 모순이라든가 열등의식이라든가 자조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자존심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말콤 X,Malcolm X>(1992) 같은 영화도 흑인의 자존심적인 부분으로 표면화 되었다기 보다는 결국은 흑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 말콤 엑스의 모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백인에 의해 방조되고 있다는 것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말콤 엑스라는 한 인간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바로 백인들의 방조라는 것이죠. 말콤 엑스의 죽음은 흑인 스스로 내부의 갈등, 서로 단합하지 못하는 분열된 자기 모순을 드러낸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현실을 스파이크 리는 개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영웅주의적으로 흑인을 묘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과 더불어 사회의식을 전하는 스파이크 리의 방식은 대중적으로도 성공하였고 미국 사회에서 흑인 인권 의식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정치적 영화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제5세대 영화 바람

대륙의 복잡한 인종 갈등을 새롭게 부상한 중국영화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제5세대' 영화사조라 불리는 감독들의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5세대' 라는 것은 중국 영화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세계 영화계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중국 영화 감독들을 말합니다. 베니스, 칸, 베를린 등 각종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감독상 등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죠.

5세대 영화란 첸 카이거陳凱歌)Chen Kaige, 장이모우張藝謀)Yimou Zhang 감독 등의 영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1950년 전후에 출생하고, 현재 60대 연령층이며, 1980년대 북경영화학교를 졸업한 신세대 영화인들 입니다. 물론 이후에 많은 중국 영화 감독들이 활동을 하지만 처음으로 서방 세계에 자신들의 얼굴을 알렸던 1세대 감독들입니다. 이들을 '제5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품들 중에서 첸 카이거의 작품은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알려졌던 <패왕별희霸王別姬, Farewell My Concubine>(1993)라든가 <현 위의 인생邊走邊唱, Life On The String>(1991) 이런 영화들이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위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우화적인 가운데,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 천안문 세대의 고통과 갈등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대는 중국 땅이지만 회교도들이 많이 사는 아랍의 접경지대에서 펼쳐지는 영화인데요. 현금의 달인인 장님 악사와 역시 장님 제자의 이야기 입니다. 끝까지 비법을 알려주지 않는 노인 악사와 그것을 전수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자가 서로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마침내 노 악사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앞길을 결국을 헤쳐 나가게 됩니다.

노 악사는 자기 생이 다하기 전에 천 개의 현을 끊겠다는 각오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눈 먼 어린 제자에게 유언을 할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신념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죠. 노인이 있는 산 아래 마을에 두 성의 사람들은 툭하면 싸우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노인은 그들의 요청을 받고 싸움을 중재하러 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 와중에 노인은 현을 타며 평화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싸우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 화해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신통한 효력을 지닌 노 악사의 음악 때문에 그는 마을에서 성자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한 번 싸움을 중재할 때마다 힘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노인은 며칠씩 현을 타지 못하고 앓아 누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은 화해를 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지만 얼마 후 또 다시 시비가 붙고 서로 물어뜯는 전쟁을 하게 되고, 노인은 또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노인은 기력이 쇠약해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 개의 줄을 끊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어린 장님 제자는 천 개의 줄을 기필코 끊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스승을 만류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스승은 일어나 나가게 되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과 소년제자의 갈등은 심화되고, 노인의 죽음 이후 제자는 스승이 못 다한 것을 이어 현을 계속 타야할지 아니면 새로운 자기의 인생을 가야할지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인데요, 사춘기의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현 속에 어떤 비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현을 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비법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지였죠.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스승에게 속았다는 생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제자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바로 그 현 속에 들어 있는 백지는 인생의 교훈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중국의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은 바로, 문화혁명 시기의 모택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년은 천안문 세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손자뻘 되는 세대입니다. 문화혁명의 어린 세대들인 홍위병 출신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주도했던 모택동의 문화혁명이 현재에 와서는 아픈 상처가 되어 있다는 자각을 이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인이 남긴 현 안의 "백지"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성 의식과 천안문 세대의 공감 의식 통해서 첸 카이거 감독은 앞으로 다가 오는 중국의 개방화를 더욱 더 지지하고 희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화적인 비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미국, 소련, 유럽 등 많은 대륙들이 복잡한 사회의식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다르게 표현해내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 인식은 영화 속에서 1980년대 이후 현대 영화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영화는 사회의식을 반향해내는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